

자립고령자의 일상생활패턴 및 영역형성에 관한 고찰

- 일본 동경권내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erritory Formation & The Daily Life Pattern of The Independent Elderly

- Focused on cases of Tokyo area -

소 갑 수* 이 한 승**
So, Kab Soo Lee, Han-Seung

Abstract

Over the last years sever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se have mainly focused on small scale projects, multi-functional houses and on the improvement of specifically designed equip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residents' life patterns and using patterns in group living having various space constitution and, does it for the purpose of looking for the formation of well state places, life patterns and the domains to use spaces for the aged who became independent. I intend to grasp their life patterns by physical space constitution and to show a direction of the house form that they can live in while feeling relieved in areas.

키워드 : 자립고령자, 동경권, 생활패턴, 영역형성

Key Words : The Independent Elderly people, Tokyo Area, Life Pattern, Territory Form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자 거주관련에 있어서 각 공간구성과 함께 개개의 생활행위나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며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고령자 공동거주형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거주자가 개인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시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역과의 교류라는 사회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나 요건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고령자 복지 시설의 개념에서 탈피한 지역과의 공동체 역할이 가능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룹리빙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서비스는 비교적 잘 계획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반면 거주자의 이용형태나 정주 장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공간에서의 생활형태, 공용공간 등의 각 공간의 이용형태, 외출활동에서의 환경요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의 생활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한 거주자의 외출 활동에 관한 고찰을 함으로써, 고령자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형성의 구축을 위하여 건축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리빙 내의 각 생활 공간 속에서 거주자의 일상적인 생활행위 및 이용형태를 살펴보고 공동체적 거주공간에 있어 자립고령자의 거주 형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거주자의 일일 생활패턴에 의한 체재형태를 파악하고 개인공간내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생활영역의 형성, 공용공간의 이용형태를 찾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조사개요

그룹리빙의 공간구성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기초로 하여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거주자의 속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스케줄을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운영주체별 거주자의 생활형태 및 패턴을 공간별, 생활행위별 체재비율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공간 중 가장 기본적인 개인공간내의 생활행위를 파악하고 물리적 환경에 따른 각 개인의 공간영역 형성과정을 유출하여 자립한 고령자의

* 정희원, 동경대학 건축학전공 객원연구원, 공학박사

** 정희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생활타입을 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사례를 통한 공용공간의 이용현황을 관찰 기록하여 운영주체에 의한 프로그램과 공용공간의 이용형태를 파악하였다.

표1. 조사개요

구분	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설문조사	6개소의 그룹리빙을 대상으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설문지 배부	· 거주자의 거주현황 · 거주자의 속성(성별, 연령, 거주기간, 이전의 가족구성 및 거주형태 등)
인터뷰조사	현재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 응답방식	· 기장에서 취침까지의 일일 생활 내용(30분 단위) · 각 공간에서의 이용형태 · 개인공간에서의 생활형태
관찰 및 기록조사	거주자와 다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공간에서의 이용현황을 관찰 기록	· 각 개인공간내의 개인 사물 배치 및 생활행위를 관찰, 기록 · 운영자측에 의한 교류프로그램의 이용현황 · 공용공간의 이용형태를 기록

표2. 조사대상자의 현황 및 속성

대상지	정원(원)	설문 대상자	조사내용				
			성별	요개호도 ¹⁾	연령	거주기간	비고
GL-E	6명(3명)	N01	여	자립	73세	4년6개월	○
		N02	여	자립	62세	2년7개월	○
		N03	여	자립	72세	1년10개월	
GL-O	9명(5명)	N04	여	자립	76세	2년6개월	○
		N05	여	요개호도3	78세	2년6개월	
		N06	여	자립	75세	2년4개월	○
		N07	여	요개호도1	76세	2년4개월	○
GL-R	10명(7명)	N08	여	자립	63세	2년2개월	○
		N09	여	자립	85세	1년8개월	○
		N10	여	자립	86세	1년7개월	○
		N11	여	자립	81세	8개월	
		N12	여	자립	67세	1개월	
		N13	여	자립	77세	1개월	○
GL-S	10명(3명)	N14	여	요개호도2	72세	1개월	
		N15	여	요지원	88세	1개월	○
		N16	여	요개호도1	71세	3개월	○
GL-I	4명(4명)	N17	여	자립	77세	1개월	○
		N18	여	요개호도2	67세	1개월	○
		N19	여	자립	72세	6년2개월	○
GL-J	7명(6명)	N20	여	자립	70세	5년4개월	○
		N21	여	요개호도2	88세	13년6개월	
		N22	여	요개호도2	89세	13년6개월	
합계	46명(28명)	N23	여	자립	83세	5년6개월	○
		N24	여	요개호도2	85세	5년	
		24명					17명

○:인터뷰 및 관찰조사 대상자

1) 2006년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의 개호보험 수정안에 의하면 요지원 1, 2, 요개호 1, 2, 3, 4, 5등급으로 종래의 6단계 등급에서 7단계로 나누어진다. 보험급여를 받고 싶은 신청자나 부양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케어 매니저(Care-Manager)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보험의 적용 여부, 등급 결정 및 개호 내용 등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2. 공간·행위별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형태

2.1 거주자의 속성 및 특성

2006년 현재 조사대상 그룹리빙 내의 거주자 현황을 보면 표2와 같다.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명 정원 중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4명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GL-J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거주자 개호도가 높아 실제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2명이외의 나머지 거주자는 조사대상에 제외시켰다.

거주자의 성별 및 연령구성에서는 주로 70세 이상의 여성거주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는 자립하여 생활이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이다. 또한 개호보험 제도상의 등급분류에 따라 요개호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립생활과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에 있어 이전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단독 거주 및 부부세대에서는 남편이 먼저 타계함으로 인해 생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자녀의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룹리빙으로 생활 장소를 이동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현거주지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이나 전문가나 의사의 권유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보다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오며 대부분이 자립된 고령자이기 때문에 의료복지 관련시설보다 일반 개인주택에서 살다가 전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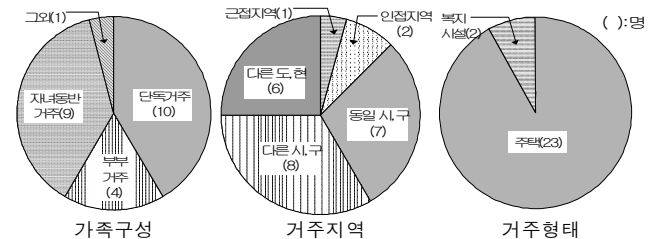


그림1. 거주자의 전거이전의 거주현황

2.2 공간체제에 의한 거주자의 생활형태

1) 운영주체에 따른 공간별·행위별 체제형태

거주자의 속성으로부터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운영주체에 따른 거주자의 일일생활 스케줄을 파악하고, 특히 우에노(上野)²⁾의 연구에 기초하여 거주자의 체제현황을 공간별, 행위별로 분류하여 생활유형과 특성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분류 항목은 표3과 같다.

이에 기초하여 거주자의 일일 생활스케줄을 보면 운영주체별 특징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면에서 각각의 생활패턴에 맞게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2).

2) 上野 淳, 高齢社会に生きる-住む続けられる施設と街のデザイン, 鹿島出版會, p115-131, 2005

표3. 공간별 · 행위별 분류항목

구분	분류기준	분류항목	
공간별	개인공간	프라이버시 공간	개인실
	공용공간	거주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거실, 부엌, 식당, 욕실, 공용실
	주변/지역	외부공간	주변 환경 및 지역시설
행위별	생활기본행위	보통 개인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취침, 개인실 내에서의 식사, 청소, 세면, 화장
	정적활동행위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행위	휴식,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구독, 독서
	여가활동행위	취미 및 오락 등의 각종 여가행위	산보, 수예 및 합창 등의 취미 활동, 체조, 영화감상, 체육관
	대화교류행위	거주자 사이나 직원과의 대화 및 교류	대화, 담소
	사회활동행위	지역사회와 외부와 접촉하여 행하는 행위	쇼핑, 각종 서비스 시설, 자원봉사활동, 통원치료 및 검진
	그 외	특정적인 행위	그 외

GL-E에서의 거주자의 생활패턴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적인 생활행위와 함께 자원봉사나 산보 등 자유로운 외출생활을 하면서 개인실 보다 식당 및 거실 등의 공용공간에서 거주자간의 교류를 통한 체제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NPO운영의 GL-O에서는 개인실에서의 생활기본행위와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취미교실에 의한 지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운영주체로부터 적극적인 생활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생활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GL-J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긴 세월동안 거주하면서 지역 내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실 내에서의 독서나 TV시청 등의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생활 형태에 따른 체제경향을 살펴보면 그림3과 같다. 공간별 체제비율에 있어서는 GL-E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자는 개인공간에서 체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공간-공용공간-주변/지역 순으로 체제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이 가운데 NPO운영의 그룹리빙에서는 공용공간에서의 체제정도가 비교적 많으나 이는 지역프로그램이나 취미활동이 공용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에 의한 것으로 주변 및 지역에서의 체제활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행위별 체제비율에서는 대부분의 거주자가 생활기본행위와 정적인 활동이 많아 전체적으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거주자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여가 및 취미활동과 함께 지역시설을 이용한 사회활동의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NPO나 기업운영의 그룹리빙에서는 지역과 연계된 지역밀착형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거주자의 생활 형태측면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생활행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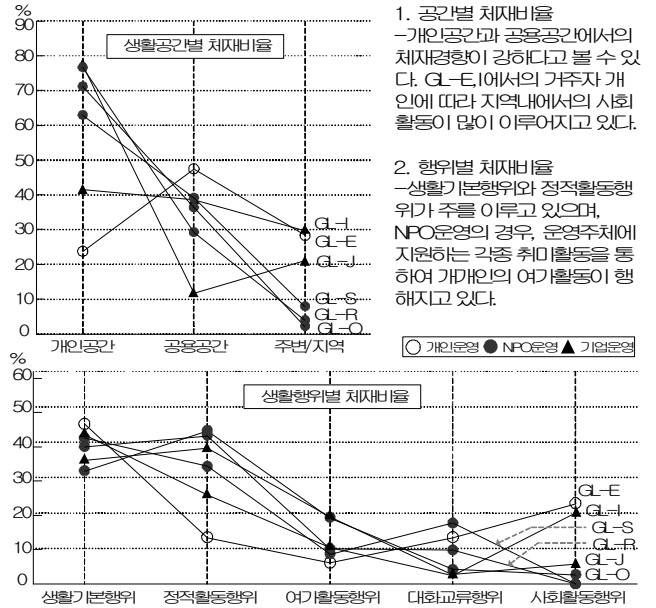


그림3. 운영주체에 따른 거주자의 체제비율

2) 거주자의 속성으로 본 체제형태

운영주체별 거주자의 일일 생활스케줄에 따른 체제형태를 살펴보면 있어 거주자 개인특성 및 속성에 따라 연령별, 거주기간별로 나누어 체제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거주자의 연령별 체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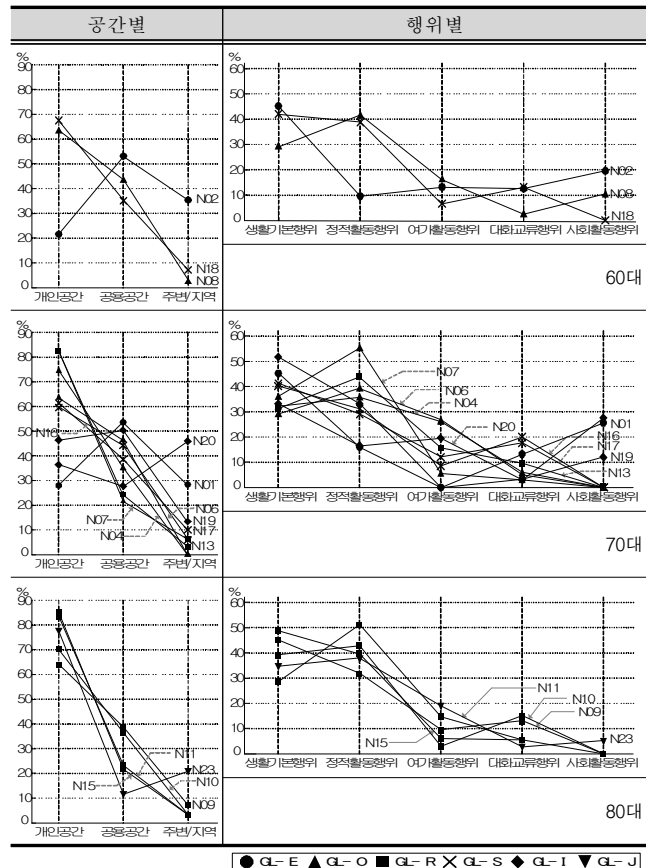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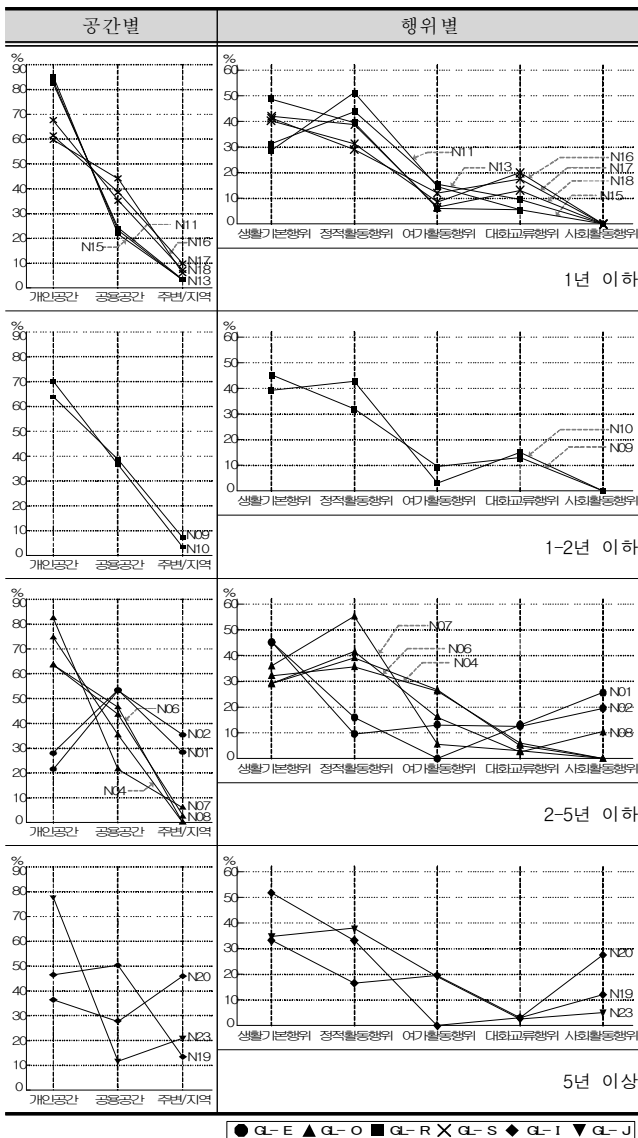


표5. 거주자의 거주기간별 체재비율



먼저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을 60대, 70대, 80대로 나누어서 보면 표4와 같다. 공간별 체재비율에서는 연령별로 약간의 차가 있지만, 대부분 개인공간을 중심으로 한 체재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중 N01, N02와 같이 공간 대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용공간에서 일상생활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역공간에서의 체재비율이 낮지만, N01, N02, N20처럼 지역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거주자도 보인다.

생활행위 체재비율에서는 운영주체별 체재비율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본행위와 정적활동행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이루어져 고령자 단독세대의 기본적인 생활패턴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80대에서는 고령에 따른 외출 및 사회활동이 둔화하는 현상이 보이나, 대부분의 거주자는 자립 가능한 고령자이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표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연령별 체재비율과 유사하게 개인공간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지역으로의 체재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생활기본행위와 정적활동행위를 위주로 한 행위별 체재가 보인다. 특히 N01, N02, N20의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과의 교류행위처럼 고령자에게 있어 거주기간경과에 따른 활동성 저하방지와 사회활동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3. 개인공간에서의 거주형태

3.1 물리적인 거주환경과 생활행위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자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설비와 가구, 개인 사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운영주체별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구성에 따른 이용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4).

대부분의 개인공간은 원룸형식으로서 N01, N02를 제외한 공간에서는 거주자 단독으로 생활이 가능한 각종 설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운영별 공간형태나 특성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행위 및 공간형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의한 물리적인 환경요소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 생활행위와 물리적 요소

구분	행위 내용	물리적 요소
취침행위	대부분 침대생활을 위주	침대, 카페트, 다다미
안식행위	휴식 및 안정	카페트, 테이블, 쇼파 등
대화·교류행위	거주자 사이와 직원의 교류	쇼파, 테이블 및 의자
식사행위	아침식사나 간식, 응접	테이블 및 의자
취사·생리행위	조리, 생리현상 해결	미니키친, 화장실 및 욕실

취침 및 안식행위는 개인실 내의 생활 행동면과 함께 영역성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식사행위는 대부분 공용공간에서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개인실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위생설비도 대부분 갖추어져 있다.

3.2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따른 활동영역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따른 활동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4처럼 개인공간에서는 개인 사물이나 설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개인공간 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로써 취침행위와 안식행위를 통한 공간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테이블이나 쇼파 등의 개인가구를 이용한 대화 및 교류영역과 위생설비 및 키친 시스템 등을 통한 생리 및 취사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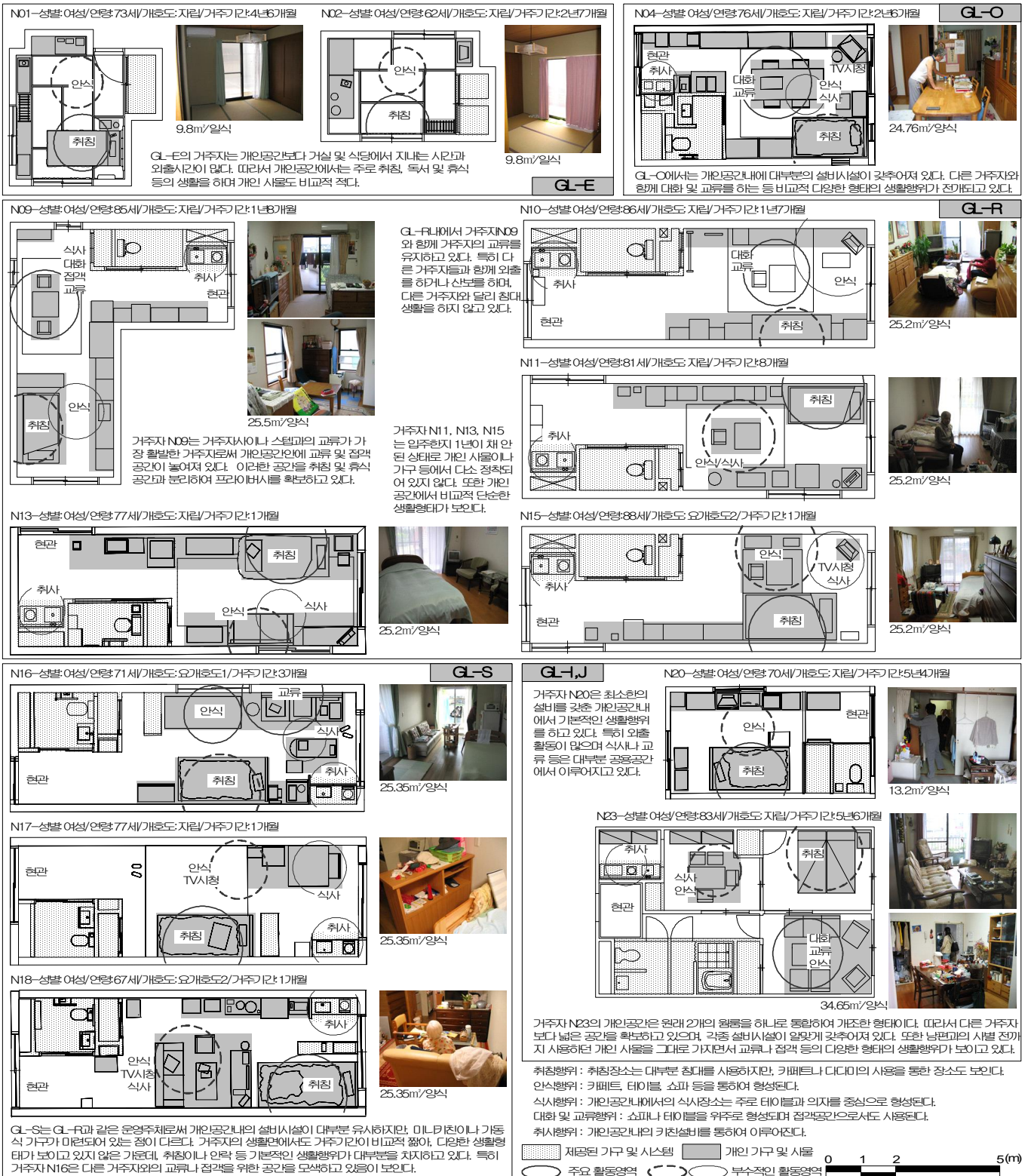


그림4.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생활형태

이러한 거주자의 생활행위와 활동 영역을 통하여 자립한 노인의 생활타입은 크게 취침영역과 대화 및 교류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개인 설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생활기본형은 취침을 중심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이

용형태로서 N01, N02, N20처럼 거주자의 일상적인 생활행위에 있어 개인공간에서의 체재보다는 공용공간에서의 식사나 대화행위, 외출활동을 위주로 거주하는 형태이다. 안식+취침 중심형은 취침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안식 및 식사행위가 부수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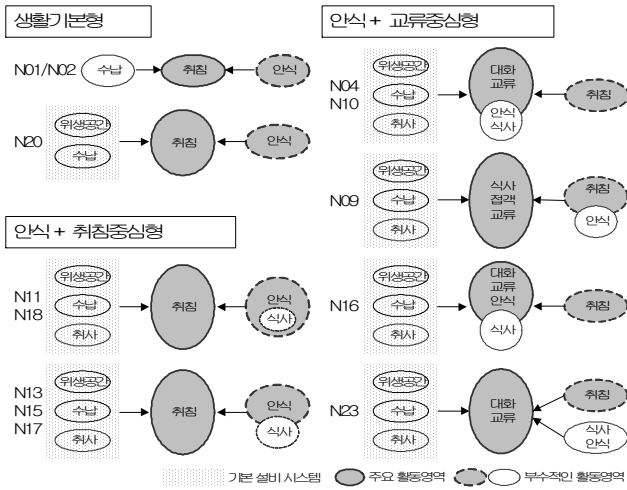


그림5. 개인공간내의 행위에 따른 생활타입 분류

있다. 개인공간의 물리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운영주체에서 제공된 충분한 설비환경이 갖추어져 있지만 거주자의 생활 측면에서는 아직 안정된 생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활타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류나 대화행위를 통하여 교류 중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화 및 교류행위를 주로 하는 형태를 안식+교류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취침 및 안식, 식사 영역으로 나누어 이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있어서의 교류행위는 개인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에서의 대화나 외출행위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 운영주체에 의해 구성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면서 각 개인의 물품이나 가구를 충분히 이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양한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4. 공용공간에서의 이용형태

일부 그룹리빙 내에는 개인공간과 함께 공동체적인 생활 활동과 지역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장소로써 공용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거주자의 각종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장소로써도 제공되고 있다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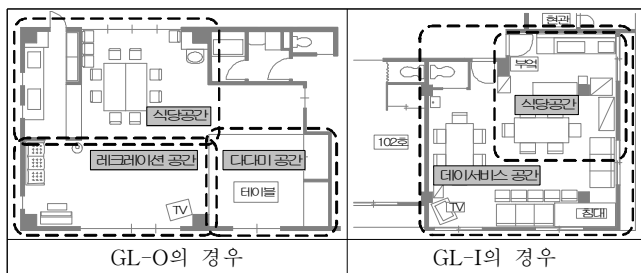


그림6. 공용공간의 공간구성형태(일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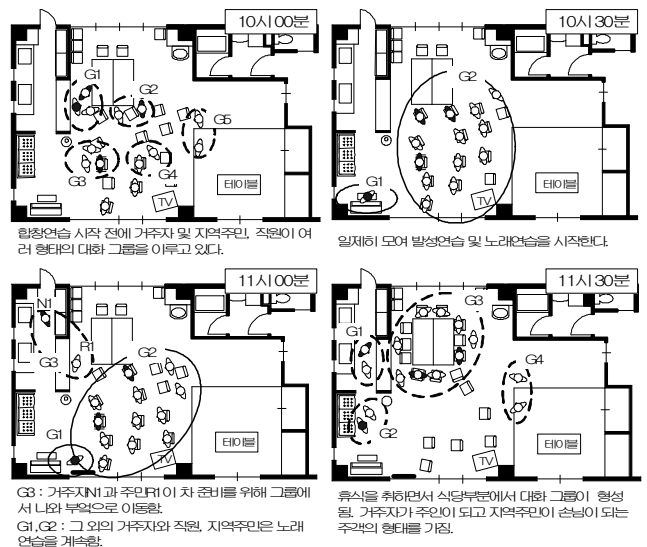
따라서 조사대상 중 공용공간이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는 GL-I, O의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 형태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7,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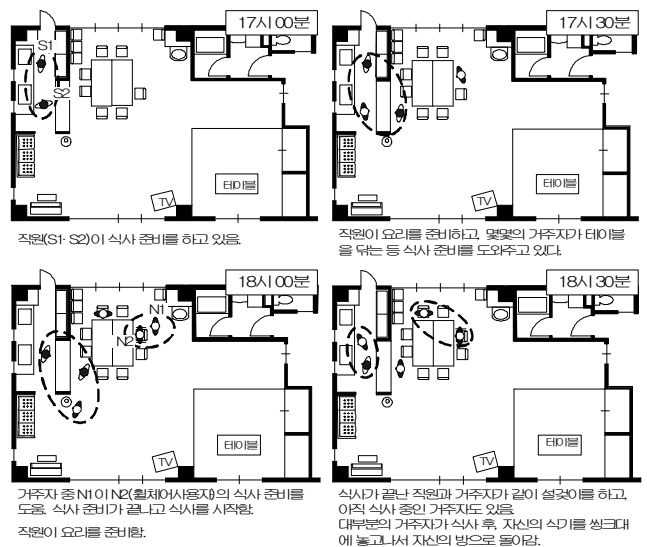
GL-O에서의 공용공간은 거주자의 식사나 대화 장소로써 자주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류의 이벤트나 각종 행사 장소로써도 제공되고 있다 (그림7).

특히 오전시간대에는 지역주민과 거주자가 함께 어울려 정기적으로 노래 연습을 하는 장소로써 거주자의 취미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오후 저녁시간대에는 거주자의 저녁식사 장소로 제공되어 공용공간이 지역교류공간과 거주자의 공동공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거주자와 직원,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 가능한 장소로써 거주자의 생활패턴의 다양화를 제공하고 있다.

GL-I에서의 공용공간의 이용형태를 보면 주간에는 지역 내의 고령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데이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어 있어 GL-O의 합창 연습공간과 마



오전시간대의 이용형태(지역교류공간으로써 이용)



오후시간대의 이용형태(공동공간으로써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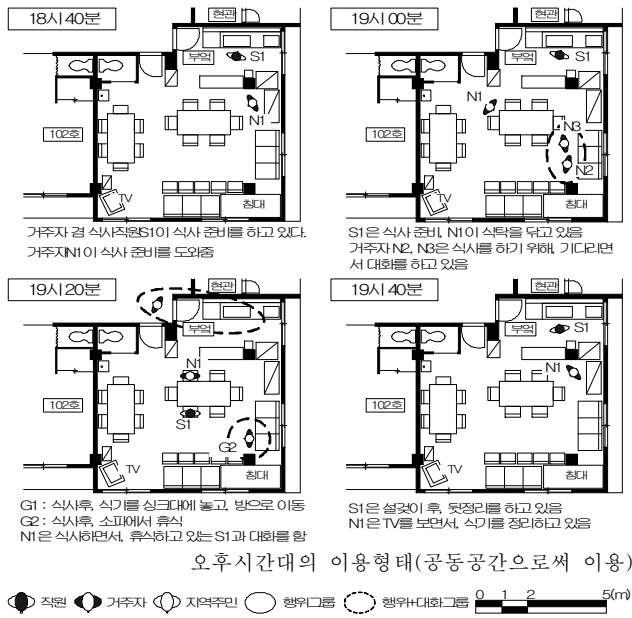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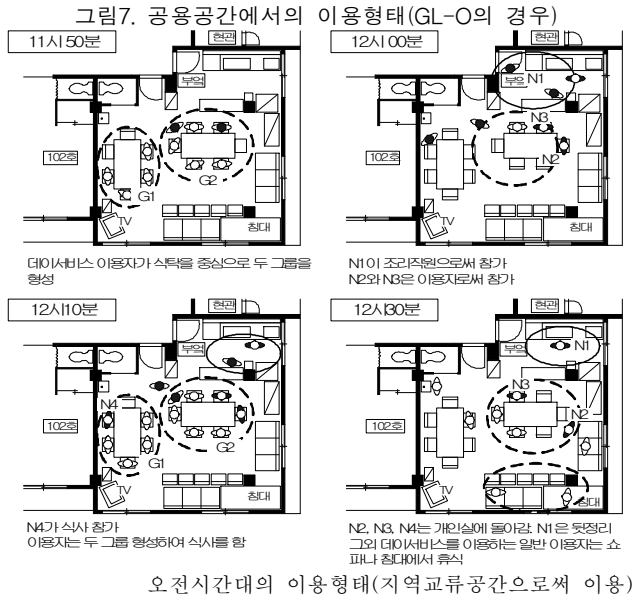


그림8. 공용공간에서의 이용형태(GL-I의 경우)

표7. 공용공간의 공간형태와 활동영역(일부 사례)

구분	GL-O	GL-I
공간 이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식당 레크레이션 공간 다다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 서비스 공동식당
거주자의 활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류공간으로의 이용 :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주로 사용됨. 휴식시간에는 식당공간까지 확장되나 다다미 공간은 단차가 있어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벤트 외에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음. 공동공간으로의 이용 : 영역이 분산되지 않고 식당공간에 한정되어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류공간으로의 이용 : 지역 내의 고령자와 함께 공용공간 전체가 재택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동공간으로의 이용 : 주로 식사위주의 공간 활용을 보이며 거주자의 활동영역이 공용공간의 일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찬가지로 공용공간이 지역교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8). 이에 따라 거주자의 이용측면에서도 지역이용자들과 함께 그룹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그룹영역은 행위만을 유지하는 행위그룹과 이용자 사이의 대화가 병행되는 행위+대화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용공간의 이용형태와 함께 거주자의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 각각의 공용공간에서의 이용형태를 보면 거주자간의 식사나 대화공간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비교적 한정된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일부 공간만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교류프로그램이나 거주자의 개인 취미활동의 도입에 따라 지역교류공간으로 일부 전용되어 있는 등 공용공간의 이용형태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소규모·다기능 고령자 공동주거에 관련하여 그룹리빙 내의 물리적인 공간 환경은 개인공간을 위주로 하면서 각 설비환경이 구축되어 거주자의 단독생활이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의한 식사 및 청소 서비스 등 자립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립고령자의 생활유형 형성에 있어 다양한 생활패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효율적인 운영방식과 함께 공용공간이 취미 및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제공되어 지역교류기능을 포함하는 등의 다각적인 공간이용이 요구되어진다. 게다가 자립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그룹리빙 내의 각 공간과 지역 환경의 이용형태에 관한 고찰을 통한 거주자의 개인생활영역을 확보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규모 다기능으로서의 일부 그룹리빙의 사례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는 개인공간을 생활의 거점으로 하여 체재하며 주로 생활기본행위와 정적활동행위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식당이나 거실 등의 공용공간에서의 교류와 함께 지역으로의 자율적인 외출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생활의 질의 향상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2. 개인공간 내에서는 취침행위와 대화·교류행위를 중심으로 각자의 물리적인 환경요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따른 생활타입은 생활기본형, 안식+취침 중심형, 안식+교류 중심형으로 나누어진다.

생활기본형은 최소한의 거주행위로서 나타나며 그 외의 생활타입은 안식행위를 공통으로 하여 취침과 교

류행위의 비중에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이러한 개인공간에서의 생활 형태는 운영주체별로 각기 달리 구성되어 있는 설비환경이나 개인공간의 형태, 거주자 개개의 물품이나 가구 배치상황 등에 따라 그 이용형태의 차이가 보인다. 즉 개인 사물이나 가구를 충분히 이용하여 개인공간 내에서 교류나 대화 행위를 하며 각 설비환경의 여건에 따라 개인공간에서의 체재보다는 공용공간이나 지역 내 외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일 생활 스케줄에도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4. 일부 그룹리빙에서의 공용공간의 공간형태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식당과 이용자 사이의 교류를 도모하는 지역교류공간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다기능적인 고령자 거주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자만을 위한 환경뿐만 아니라 여가 및 취미활동,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운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인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11-2005-056-04003-0)

참고문헌

1. 소갑수, 소규모·다기능 고령자주택의 공간구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3권 1호 pp.17-26, 2007.
2. 橋 弘志 외, 個別型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書系論文集500号, pp.133, 1997.10
3. 大江 守之, 高齢者グループリビングの展開と可能性, QualityNursing, 2004.
4. 上野 淳, 高齢社會に生きる-住み續けられる施設と街のデザイン, 鹿島出版會, 2005.
5. 王青 외, 在宅養護高齢者の生活領域に関する考察-高齢者の閉じこもり現象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書系論文集 546号, pp.91, 1999.9
6. シニアライフ情報センター編, 終の住まいの探し方, 岩波書店 2003.
7. 西條 節子, 高齢者グループリビング COCO湘南台, 生活思想社, 2003.
8. 下仲 順子 編, 高齢者心理學, 建阜社, 2004.
9. 近藤 恭代 외, 高齢者グループリビングに関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2002.